

# 경주국립공원 문화경관 특성과 관리방안 연구

한봉호\* · 허지연\*\* · 최진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재)환경생태연구재단

## I. 서론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 경관, 역사문화 자원을 간직한 자연 및 문화유산으로서 자연보전을 전제로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에 중점을 두고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12). 국립공원의 범위는 1980년 자연공원법 개정 후,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으로 확대되었고, 2001년부터는 국립공원 의 정의에도 반영되었다. 법적 근간의 변화는 관리방향과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신용석, 2013).

경주국립공원은 1968년에 지정되었으며, 사적형 국립공원 특수성이 고려되어 경주시에서 관리해오다가 2008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다. 경주국립공원은 문화재가 분포하는 산림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있으며, 각 지구별로 식생, 이용행태, 주변 여건 등 차이가 있어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이슬비, 2013), 문화재보호구역과 공원문화유산지구, 사찰지 등 영역이 중복되어 보호기능이 제한적이다.

‘문화경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개념이 있으며, 보존·복원하는 목적을 갖고(문지영, 2012) 역사적 유적이나 활동과 연관된 문화·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역이다(손호기, 2008). ‘문화경관림’은 문화유산 주변에 보존되어 오는 숲으로 조화를 이루는 주변 자연경관이다. 문화재 고유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문화경관림에 대한 관심과 이를 고려한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주국립공원의 문화경관과 세계문화유산 주변을 이루는 문화경관림 특성을 분석하여 사적형 국립공원에 걸맞는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경주국립공원 전체 공원구역이 해당되며, 면적은 136.55km<sup>2</sup>이다. 세부 대상지는 문화재가 포함된 주변 문화경관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역사유적지구 남산지구와 불국사, 석굴암을 선정하였다. 공원 내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64건이 위치하며, 남산지구를 중심으로 비

지정문화재가 집중 분포하고 있었다. 경주국립공원은 총 8개의 관리지구로 구성되어 있고, 2011년 공원구역 조정으로 공원마루지구 면적이 감소되고,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신설되었다(국립공원관리공단, 2012).

### 2. 조사분석 방법

#### 1) 문화경관

경주국립공원의 문화경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식생분포 현황을 분석하여 현존식생도를 작성하였다. 현존식생도는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초자료로서 다양한 주제도 작성이 가능하다. 식생 현황은 영상을 반영하여 작성한 기초공간지도를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에 중첩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교목층 우점종의 식생상관을 고려하여 속성자료를 구축하였다. Autodesk Map 2004와 ArcView 3.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면적 및 비율을 산출하였다.

#### 2) 세계문화유산 문화경관림

세계문화유산 지역은 경주국립공원의 현존식생에 지정·일반문화재 DB를 중첩하여 ArcView 3.3 프로그램으로 도면화하였다. 남산지구 공원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식생 특성과 중요문화재 주변 문화경관림 특성을 분석하였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주변 지역을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식생현황을 조사·분석하였고, 불국사 주변 식재지는 1/1,000 축척으로 식재개념과 수목위치를 조사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문화경관 특성

경주국립공원은 남산과 소금강산을 중심으로 소나무림(30.5%)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토함산과 단석산 능선과 사면을 중심으로 굴참나무(20.9%)를 포함한 졸참나무(8.3%), 신갈나무(6.8%) 등 참나무류림이 47.9%로 넓게 분포하였다. 일부 계곡부에는 느티나무(0.6%)를 비롯한 개서어나무(0.5%), 버드나무(0.1%) 등이 생육하였으며, 사면부에 잣나무가 2.39%로 면적이 넓었고, 일본잎갈나무(0.5%)와 같은 인공림이 소규모로 분포하였다. 역

사문화지는 0.6%이었다. 경주국립공원 현존식생 조사분석 결과, 일부 계곡부를 제외하고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국립공원 연구에서는 지형적 특성이 반영된 식생의 발달, 기후대별 가치있는 수종 분포, 위치적으로 도시와 유사한 식생 분포하는 등 각 공원별 특색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김현숙 등, 2011; 오구균과 김영선, 2009; 오현경 등, 2013).

토함산지구는 경주국립공원 전체 식생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무장봉 주변에 일부 초원식생이 분포하였다. 남산지구는 소나무림이 85.4%로 대부분이었고, 묘지 등 잔디식재지가 0.3%로 비교적 비율이 높았다. 소금강지구는 산불로 인한 벌채지 및 나지가 25.5%로 높았으며, 단석산지구는 졸참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류림 비율이 높았다. 구미산지구는 논경작지가 3.2%로 두드러졌다. 화랑지구와 서악지구는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여 아까시나무, 잣나무 등 인공림의 비율이 높았고, 대본지구는 다른 지구에 비해 덩굴식생지가 1.7%로 넓게 분포하였다. 경주국립공원은 주변 여건에 따른 자원, 이용행태 등이 달라 지구별 식생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존식생도를 활용하여 지구별 문화경관과 쟁점을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세계문화유산 문화경관 특성

남산지구는 석조문화재를 중심으로 20여개의 지정문화재와 90여개의 일반문화재가 산재하는 곳으로 DB구축되지 않은 일반문화재도 다수 분포하였다. 남산지구 내 천룡사, 보리사가 공원 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경목 소나무림이 특징적인 삼릉이 인접하였다. 신선암마애보살반가상, 용장사지마애여래좌상 등 중요문화재가 위치하고 이용강도가 높고 묘지가 다수 산포되어 있어 셋길의 발달되어 있었다. 남산지구는 약 85%가 소나무림으로 문화경관을 이루고 있었다. 남산지구의 중요문화재 및 사찰 주변의 소나무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화 관리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셋길 및 탐방로가 정비되어야 한다.

불국사는 배경공간이 되는 산림식생이 소나무림으로 불국사 주변과 토함산 일정지역까지 대경목 소나무림이 분포하고 있었다. 소나무림은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일부 관리되고 있었다. 불국사 경내와 일부 주변 식재지는 1970년대 불국사 복원 정비사업, 불국사 관광호텔 철거지구 및 주변 조경계획 등을 통해 양버즘나무, 메타세콰이아, 일본목련, 히말라야시다 등 외래종이 식재되어 주변 경관이 이질적으로 변화한

문화경관임을 이루고 있었다. 불국사 경내 및 주변 경관의 시대적 변천을 파악하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경관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석굴암은 주변 산림식생이 느티나무, 서어나무, 신갈나무와 같은 낙엽활엽수림이었다. 대부분 흉고직경 30cm 이상의 대경목이었으며, 산림 능선부에는 잣나무가 분포하였으나, 1930년대 사진에서 소나무가 생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주문에서 석굴암 가는길 주변에는 대경목 소나무림이 분포하였고, 석굴암과 주변 전각이 있는 마당에는 은행나무, 잣나무와 같은 외래종이 식재되어 있었다. 석굴암의 배경공간이 되는 산림 능선부와 주변 경관이 연계될 수 있는 문화경관 보전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IV. 결론

경주국립공원의 현존식생은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일부 계곡부를 제외하고는 식생학적으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 뚜렷하지는 않았다. 경주시 내 파편화된 8개의 관리지구는 지구별 식생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현존식생도를 활용한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문화유산 사찰 주변은 외래종 식재로 생태계와 교란되고, 주변 자연경관이 이질적으로 변화하여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역사문화유산 및 주변 문화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면적으로 강조하여 사적형 국립공원의 가치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문화재 주변 식생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문화재와 주변 식생이 지도화 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경관 관리지역의 범위를 설정한 후 강도에 따라 관리 유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1. 국립공원관리공단(2012) 제1차 경주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2013~2022).
2. 김현숙, 이상명, 송호경(2011) 덕유산국립공원 현존식생 분포현황 및 천이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5(1): 37-46.
3. 문지영(2012) 조선시대 교량의 문화경관 해석 : 연결, 교감, 상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손호기(2008) 문화경관 유형에 따른 관광영향과 보전의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신용석(2013)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정책과 발전방향.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3(1): 13-28.
6. 오구균, 김영선(2009) 변산반도국립공원의 식생분포 및 녹지자연도 사정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3(2): 161-168.
7. 오현경, 한윤희, 강현미, 김동효, 유주환(2013) 산림휴양기능 관리를 위한 북한산국립공원의 현존식생 특성.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7(4): 169-182.
8. 이슬비(2013) 경주국립공원 지구특성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인식차이.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